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연방보험기구 설립안, 논쟁 지속

- 미 상원과 하원의 금융개혁안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방보험기구 설립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나 연방기구의 권한범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.
 - 상원과 하원은 연방기구를 재무부 소관으로 두고 국제보험협약 체결 시 통상대표부와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, 연방보험기구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.
- 상하원 대표들은 연방보험기구의 결정에 대한 사법 조사권(judicial review)과 주법에 대한 우선권 두 가지의 허용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.
 - 하원은 주법과 관계된 연방보험기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조사권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, 상원은 이 경우 연방보험기구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고 법원의 절차로 인해 연방기구의 결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.
 - 또한 하원은 상원의 안에 따르면 국제협약이 쉽게 주(州)법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보험기구가 체결하는 국제협약이 주법에 우선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 - 상원 대표들은 연방보험기구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하원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며, 양측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임.
- 연방보험기구 설립안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하원의 안을 지지하고, 생명보험과 재보험 업계는 상원의 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함.
 - 손해보험협회는 하원의 안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상원의 안은 연방보험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며, 보험감독관협의회(NAIC)도 하원의 안을 지지한다고 밝힘.
 - 반면 생명보험협회와 재보험협회 등은 서한을 통해 상원의 안이 국제 보험이슈에 대응하는 연방기구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국제 감독 무대에서 권위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원의 안을 지지함.

(Insurance News Net, 6/16)